

### 335장 - 크고 놀라운 평화

- (1)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2)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3)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4)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 (후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옆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 313장 -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1)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한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 (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 (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 (4)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피로 값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1월 29일(수) 기도 담당 : 전관식 집사

2020년 1월 28일(화)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35장 ..... 다 같 이  
기 도 ..... 박형중 집사  
성 경 봉 독 ..... 스가랴 8장 3~6, 19절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 ..... 박세훈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313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 스가랴 8:3~6, 19 >

- 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 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 5)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28일(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 자비로 온 땅을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울 수 없는 죄악과 실패의 기록 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은혜를 바라 뵙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 참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기이한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주의 주권 앞에서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많은 고비마다 권능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 민족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날 들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의 날을 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 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도리어 미래를 향해 힘 있게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북핵 위기와 전염병과 질환의 위협을 종식시키시고 평화의 날로 이 끌어주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130여년의 긴 시간 동안 이 나라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 립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이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 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생명 양식을 온 성도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교역자들과 해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두나미스 선교 사역을 지키시고 온전한 열매로 결실을 이루기까지 인도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